DOI : 10.5392/JKCA.10.10.226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Desire of Aged People in the Institution on Coping Behavior Toward Sex

최유호*, 김윤정**, 김용미***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Yoo-Ho Choi(sayme0404@hanmail.net)*, Youn-Jeong Kim(twoyun21@hanmail.net)**,
Yong-Mi Kim (kym3ds@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352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성태도와 성욕구가 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시설노인들의 성태도는 부정적인 성태도가 긍정적인 성태도 보다 높고, 성욕구나 성대처 행동은 중앙값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시설노인들의 긍정적 성태도는 남자 65세 이하, 시설 종사자들이 남녀 노인간 이성교제를 좋게 본다고 인식하는 경우, 시설노인들이 동료 노인들의 이성교제를 좋게 본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성태도의 점수가 높았다. 부정적인 성태도는 86세 이상이 높았고, 학력은 초·중졸집단이 높고, 고졸이상, 무학 순으로 역U자형 곡선을 보였다. 넷째, 성충동은 남자인 경우, 65세 이하인 경우에 성충동 점수가 높았다. 성관계 욕구는 남자인 경우, 65세 이하인 경우, 학력은 무학인 경우에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고졸이상, 초▪중졸순으로 나타나 U자형 곡선을 보였다. 다섯째, 남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남자인 경우, 66~75세인 경우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의 점수가 높았다. 다섯째, 시설노인들의 긍정적인 성태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성태도는 낮았으며 성충동, 성관계욕구가 높고, 문제중심적 대처행동과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일수록, 성충동과 성관계 욕구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성태도 | 성욕구 | 성대처행동 | 시설노인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enescent sexual attitude and desire of 352 aged people living in institutions on coping behavior.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negative sexual attitude was higher than the positive one of the aged peopl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their sexual desire and coping behavior showed a low level, falling short of the median.

Secondly, as for the positive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in the institution, the point of sexual attitude of those under age 65 appeared high. As for the negative attitude, the point was higher among those over 89 in age, that of the group who graduated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as also high, showing a U-turn curve in the order of those with an academic background of high school and above and those with no academic background. Thirdly, as for sex drive, the point of sexual attitude of those under age 65 appeared high in cases where persons engaged in the institution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ged men and women as good and in cases where aged people in the institution see the relationship among their fellow aged people as good. As for the desire for sexual relationship, the lower their ages were, their points were higher; and in terms of academic background, the highest were those with none, followed by those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above and by those who did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howing a U-turn curve. Fourthly, as for the problem-focused coping behavior of aged people in the institution with respect to coping behavior toward the sex, the lower their ages were lower, the higher their points were, and the points were also high in cases where persons engaged in the institution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ged men and women as good and in cases where aged people in the institution see the relationship among their fellow aged people as good. As for the problem-evading coping measure, the points for men at age between 66 and 75 appeared high in cases where persons. Fifthly, the higher the positive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in the institution was, the lower their negative sexual attitude was while the higher the sex drive and the desire for sexual relationship were; and they were shown to do problem-focused coping behavior and problem-evading coping behavior well. Sixthly, the more positive their sexual attitude was, the higher the sex drive and the desire for sexual relationship were, the better they were shown to do problem-focused coping behavior.

■ keyword : | Sexual Attitude | Sexual Desire | Coping Behavior Toward the Sex | Aged People Living in Institutions |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서대학교 대학원생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00610-003
접수일자 : 2010년 06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21일
교신저자 : 김윤정, e-mail : twoyun21@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인구비율면에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5,192,710명(10.7%), 2018년 7,074,763명(14.31%), 2026년에는 10,218,239명(20.8%)으로 노인인구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추세이다. UN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3].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 같은 1차적인 사회구성원에게만 의지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은 핵가족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통사회의 붕괴는 물론 노인들의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약화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단독가구 즉 독신노인가구 및 부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노부부 또는 노인단독세대는 전체노인의 7.0%였고 1980년대 초에는 14.0%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농촌지역은 80.0%, 도시지역에서는 50.0%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24].

특히, 최근 여건만 된다면 자식이 있는 가정을 떠나 그들만의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유료양로시설을 비롯해서 노인아파트, 노인촌, 노인연립주택, 노인휴양소 등의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입주 가능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시설입주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23].

그런데, 노인시설은 지역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즉, 지역사회의 노인과는 달리 남녀노인이 함께 같은 층 혹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옆방 혹은 옆 건물에서 성이 다른 노인과 함께 거주를 하는 특성이 있고, 독립된 객실에서 생활을 한다 해도 식사시간이나 레크레이션 등의 시간에 만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의 노인 간의 이성문제는 시설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16].

그럼에도 현재 노인의 성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2][5][7][10][11][13][15]은 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태도, 성욕구, 성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설노인의 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시설종사자의 성태도[16][19], 시설의 물리적 인적 환경과 노인의 성태도간의 관계[17], 시설거주노인과 재가 노인들의 성만족의 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한 규명[11]등의 연구들만을 찾아볼 수 있어 시설노인의 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년기 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노년기 성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지고 있다[2][7][10]. 즉 노년기에 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노화방지 및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신감 회복과 일상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성욕구나 성충동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노인의 성욕구대처와 관련하여 발표된 몇 편의 연구[5][8][10][14]는 모두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하나의 거주시설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설노인들의 성욕구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시설노인의 성욕구와 성충동을 다루고 대처해야 하는 시설노인 및 시설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성태도와 성욕구, 성대처행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 성대처행동

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시설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욕구, 성대처행동은 차이가 나는가? 셋째, 시설노인의 성태도와 성욕구는 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태도와 성욕구

성(Sexuality)은 생리적, 문화적, 사회적, 발달적 차원과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다. Steinke와 Bergen(1986)은 노년기의 성은 그 자체적 목적으로서 성, 즉 기쁨, 이완, 의사소통, 친밀감을 함께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기능에 관한 최초의 실험실 연구자였던 Master와 Johnson(1966)은 인간의 성적반응은 노화과정에 의해 느려지기는 하나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여성 노인들이 노년기에도 원만한 성적능력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성욕구에 노출된 노인일수록 그 경향이 강해지며 남성노인들인 경우 지속적인 성생활이 이어지고 환경이 규칙적으로 주어질 때 건강여부에 따라 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건강상태 여부나 시설기관의 입소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욕구가 줄지 않고, 성 기능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도 노년기가 되어도 성적인 욕구가 달라지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항상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성적 능력을 유지한다고 드러나고 있다[18].

따라서 노인들도 성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활동도 지속적인데[2][3][7][18], 이러한 노년기 성욕구와 성충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자노인의 경우, 그리고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높으며, 고졸이하이고 혼자 사는 경우, 직업이 무직, 노동,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성욕구가 낮았다[12].

이러한 경향은 시설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성에 대한 태도는 노인 자신의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19], 성행동 빈도가 높고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적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용적인 성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환경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1]고 주장하기도 한다.

2. 성대처행동

대처(coping)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갈등이나 긴장, 부담을 극복하거나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1]. 대처방식은 특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대처란 생활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일 매일 부딪히는 문제로 유기체의 균형이 깨지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적응의 과정이기 때문이다[21].

이러한 대처방식은 몇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Lazarus & Folkman(1984)은 대처방식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해로운 환경조건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디는 것으로 그런 상황에 적응하는 것, 셋째로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는 것, 넷째는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이며, 크게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구분하였다.

한편, 성욕구 대처행동이란 성적욕구를 통제 혹은 표현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식으로 성충동으로부터 주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개인이 취하는 대처방식을 의미한다[13]. 또한 방영숙과 남기민(2009)은 성욕구를 하나의 스트레스로 간주할 때, 사회문화적 환경과 신체적 심리적인 개인적 특성 및 성가치관에 적합하게 자신의 성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성욕구 대처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노년의 삶에서 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욕구에 대한 대처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신체의 접촉, 느낌의 공유,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들이 중요해지고[20], 규칙적인 성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건강상태를 증

진시키고 우울감은 낮춘다는 보고[27]를 볼 때 노년기 성적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자신들의 성문제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오래 동안 누적된 개인적, 상호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성 갈등이 반복적이며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하다[22]. 노년기 부부의 성 갈등은 배우자간 의사소통방식과 갈등 대처방식에 따라 부정적 생활감정과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및 성적 불만족에서 비롯된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산물이다. 노인들이 지각한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감, 신체적 노화,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 유무, 자신의 주거 환경 등은 성생활 갈등과 대처 방식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먼저, 나임순(2005)은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욕구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성지식은 성욕구의 표현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유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성욕구의 표현적 해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미와 김윤정(2006)에 의하면 성욕구로 인한 대처행동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영숙과 남기민(200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성태도는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인의 성욕구 대처행동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욕구 대처행동은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욕구에 수동적 회피적 대처방안이나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8]도 있다.

따라서 노년기 성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년기의 성적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노인도 성적인 존재이며 성적욕구에 대한 대처방법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 성대처행동에 관한 정보는 주지 못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05년 5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되었다. 무료시설 23개소, 유료시설 12개소로 총35개 시설에서 352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된 시설의 위치는 서울 2개소, 경기도 10개소, 전북 10개소, 전남의 5개 시설 등이었다. 조사방법은 임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별 표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시설의 경우에는 직접 시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설문에 응해 준 시설장을 협력자로 다른 시설장을 소개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성이라는 주제가 다소 민감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은 유료시설장 모임에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의뢰하였고, 전북지역은 K대학 목회자반에 다니는 목회자를 통해서 시설장을 접촉하여 조사하였고, 전남지역은 전화와 메일을 통해 승낙여부 확인 후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도 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 352명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이 31.4%, 여자노인이 68.6%이었다. 평균 연령이 76.3세로 65세 이하 9.4%, 65~75세가 33.5%, 76~85세 45.5%, 86세 이상이 11.6%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48.9%, 초·중졸이 32.7%, 고졸이상이 15.6%이었다. 시설종사자들의 남녀 노인간의 이성교제를 보는 시각은 '그저 그렇다'가 42.6%로 가장 높았고 '좋게 본다'가 31.3%, '좋지 않게 본다'는 21.3%로서 좋게 보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의 동료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좋지 않게 본다'가 37.8%, '그저 그렇다'가 37.2%, '좋게 본다'가 22.7%로 좋지 않게 보는 비율이 높았다.

3. 측정척도

3.1 성태도

성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이창은과 김주희(2000)의 척도 10문항에 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12개의 문항들

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를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설노인의 성 태도는 문항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긍정적인 성태도와 부정적인 성태도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인 성태도는 '노인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자주 가져야 한다'. '노인의 성생활도 장려되어야 한다' 등 노년기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긍정적인 성태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82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성태도는 '성생활은 젊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늙으면 필요 없다', '노인들은 성행위가 필요 없다', '시설에서의 노인의 성행위는 있어선 안된다' 등 4개의 문항으로 노년기 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부정적인 성태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73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2 성욕구

성욕구에 관한 측정도구는 박영숙(2001)의 연구를 기초로 노인에게 적합한 문항들로 수정 보완한 김용미(2004)의 19개 문항 중에서 요인 부하량값이 높은 11개의 문항만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를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설노인의 성욕구는 문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 성충동과 성관계욕구로 구분하였다.

성충동은 '여자(남자) 사진이나 책등을 보았을 때 성욕구를 느낀다'. 'TV의 야한장면을 보았을 때 성욕구를 느낀다', '상대자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 성욕구를 느낀다' 등 8개의 문항으로 노년기 성충동을 보이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성충동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92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충동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관계욕구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머리에 떠오른다',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다' 등 3개의 문항으로 노년기 성 관계 욕구를 보이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성관계 욕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86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계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성대처행동

성 대처행동에 관한 측정도구는 박영숙(2001)의 측정도구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문항들을 선별 보완한 김용미(2004)의 21개 문항 중에서 요인 부하량값이 높은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통해서 해소한다', '자위행위로 해소한다', '키스나 애무행위를 한다', '술이나 담배를 피운다' 등 12개 문항으로 작성하였고 '매우 그렇다'를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성 대처행동에 대한 요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성 대처행동 12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은 주축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으로, 요인회전은 직교법 중 베리멕스(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 2개가 추출되었으며 문제중심적 대처행동과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은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통해서 해소한다. 자위행위, 키스나 애무행위, 성적행동에 대한 공상, 과거 경험했던 유쾌했던 성적 장면을 기억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성적욕구 중심적으로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의 Cronbach α값이 .87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을 잘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은 '바둑・장기・독서 등 취미활동을 한다, 외출을 한다, 술・담배를 사용한다' 등의 문항들로 성욕구에 직접적인 대처를 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대처행동으로 구성되었다.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74 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회피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성대처행동은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성태도의 긍정적인 성태도, 부정적인 성태도, 성욕구의 성충동과 성관계욕구, 성 대처행동의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과 문제 회피적 대처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욕구와 성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성욕구와 성태도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Ⅳ. 결과 및 해석

1. 각 변수의 일반적 경향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 및 성 대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성태도, 성욕구, 성대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352〉

구 분		평균(표준편차)
성 태 도	긍정적 성태도	1.75(.49)
	부정적 성태도	1.97(.59)
성 욕 구	성 충 동	1.47(.51)
	성관계 욕구	1.44(.53)
성 대처행동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1.30(.39)
	문제회피적 대처행동	1.44(.48)

본 연구의 대상인 시설노인들의 성태도는 3점 만점에 긍정적인 성태도가 1.75, 부정적인 성태도가 1.97로 중앙값 2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값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성욕구도 3점 만점에 성충동은 1.47, 성관계 욕구는 1.44로 중앙값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김용미(2004)의 남자노인들에서 감각적성충동과 성관계욕구가 중앙값 이상이었던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시설노인의 성충동과 성관계욕구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대처행동에서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은 3점 만점에 1.30,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은 1.44로 중앙값보다 낮았다[표 1]. 이는 김용미(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2. 시설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성

2.1 시설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시설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를 살펴보면[표 2], 시설노인들의 긍정적 성태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긍정적 성태도는 남자, 65세 이하인 경우에 긍정적인 성태도의 점수가 높았다. 부정적인 성태도는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정적인 성태도는 86세 이상이 높았고, 초·중졸, 고졸이상, 무학순으로 역U자형 곡선을 보였다. 이는 여순자・김윤정(2006), 송기오(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표 2. 시설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N = 352〉

구 분		긍정적 성태도			부정적 성태도		
		빈도	평균 (SD)	t/F값 (Duncan)	빈도	평균 (SD)	t/F값 (Duncan)
성별	남	107	1.88 (.46)	3.40***	108	1.91 (.51)	-1.16
	여	236	1.69 (.49)		236	1.99 (.63)	
연령	65세 이하	32	1.95 (.46)	C	32	1.80 (.53)	A
	66~75세	118	1.83 (.44)	BC	118	1.83 (.49)	A
	76~85세	159	1.55 (.47)	AB	160	2.02 (.62)	A
	86세 이상	41	1.75 (.49)	A	41	2.26 (.68)	B
				5.99***			7.03***
학력	무학	172	1.78 (.48)		172	1.89 (.55)	A
	초·중졸	114	1.67 (.49)	1.86	115	2.08 (.67)	B
	고졸이상	55	1.76 (.49)		55	1.98 (.54)	AB
							3.67*

*** p<.001, *p<.05

2.2 시설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욕구

다음으로 시설노인들의 성욕구 역시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표 3], 성충동은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충동은 남자, 65세 이하인 경우에 성충동 점수가 높았다. 성관계 욕구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의 경우, 65세 이하인 경우 성관계 욕구가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 고졸이상, 초중졸 순으로 성관계욕

구가 높아 U자형 곡선을 보였다. 이는 송기오(2008)의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와 연령이 낮을수록 성욕구가 높았고, 김용미(2004)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과 무학·초졸보다는 중졸이상의 학력에서 감각적 성욕구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시설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욕구
〈N = 352〉

구 분		성충동			성관계욕구		
		빈도	평균 (SD)	t/F값 (Duncan)	빈도	평균 (SD)	t/F값 (Duncan)
성별	남	106	1.79 (.55)	8.48***	106	1.73 (.57)	7.63***
	여	235	1.32 (.42)		235	1.30 (.45)	
연령	65세 이하	33	1.70 (.47)	C	33	1.66 (.53)	C
	66~75세	118	1.57 (.51)	BC	118	1.56 (.53)	BC
	76~85세	158	1.44 (.53)	B	158	1.38 (.54)	B
	86세 이상	40	1.16 (.32)	A	40	1.13 (.29)	A
학력	무학	171	1.47 (.49)		171	1.51 (.55)	B
	초·중졸	114	1.41 (.48)	1.49	114	1.33 (.46)	4.27* A
	고졸 이상	54	1.55 (.58)		54	1.38 (.56)	AB

***p<.001, *p<.05

2.3 시설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 대처행동

시설노인들의 성충동 및 성욕구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행동과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은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즉, 남자의 경우, 65세 이하인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의 점수가 높았고,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은 남자의 경우, 66~75세 연령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표 4. 시설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 대처행동
〈N = 352〉

구 분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문제회피적 대처행동		
		빈도	평균 (SD)	t/F값 (Duncan)	빈도	평균 (SD)	t/F값 (Duncan)
성별	남	106	1.49 (.44)	7.15***	106	1.70 (.50)	7.52***
	여	236	1.19 (.307		236	1.32 (.40)	
연령	65세 이하	32	1.56 (.48)	C	32	1.56 (.51)	B
	66~75세	118	1.42 (.41)	B	118	1.60 (.52)	B
	76~85세	159	1.20 (.33)	A	159	1.36 (.43)	A
	86세 이상	40	1.10 (.22)	A	40	1.21 (.28)	A
학력	무학	172	1.30 (.37)		172	1.40 (.44)	
	초·중졸	114	1.26 (.37)	.33	114	1.45 (.49)	.98
	고졸 이상	54	1.27 (.40)		54	1.49 (.50)	

*** p<.001, *p<.05

3.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표 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 간 상관계수는 .06에서 .79까지로 성충동과 성관계욕구간의 상관이 높긴 하나 .80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성태도가 높을수록 성충동(r=.56, p<.001), 성관계욕구(r=.49, p<.001)가 높고, 문제중심적 대처행동(r=.48, p<.001)과 문제회피적 대처행동(r=.29, p<.001)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문제중심적이든 혹은 문제회피적이든 대처행동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성태도가 높을수록 성관계욕구(r=-.13, p<.05)가 낮았으며, 문제중심적 대처행동(r=-.10, p<.05) 또한 낮았다.

성충동이 높을수록 성관계 욕구(r=.79, p<.001)가 높았으며, 문제중심적 대처행동(r=.70, p<.001)과 문제회피적 대처행동(r=.58, p<.001)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욕구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r=.69, p<.001)과 문제회피적 대처행동(r=.52, p<.001)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노인일수록 문제 회피적 대처행동 또한 잘하였으며(r=.67, p<.001)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성태도와 성욕구 및 성대처행동의 상관관계

〈N = 352〉

구 분	긍정적 성태도	부정적 성태도	성충동	성관계 욕구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문제회피적 대처행동
긍정적인 성태도						
부정적인 성태도	-.14*					
성충동	.57***	-.06				
성관계욕구	.50***	-.13*	.79***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49***	-.10*	.70***	.69***		
문제회피적 대처행동	.29***	-.06	.58***	.52***	.67***	

*** p<.001, *p<.05

다음으로는 시설노인들의 성태도와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긍정적 성태도, 부정적 성태도, 성충동, 성관계 욕구가 시설노인의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57.3%를 설명하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일수록, 성충동과 성관계 욕구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태도와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352〉

독 립 변 수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B(β)	문제회피적 대처행동 B(β)
성별	-.04(-.05)	-.126(-.11)*
연령	-.07(-.15)***	-.00(-.06)
학력	-.01(-.03)	.02(.04)
긍정적 성태도	.07(.09)*	-.07(-.07)
부정적 성태도	.01(.01)	-.01(-.02)
성 충 동	.26(.35)***	.40(.44)***
성 관계 욕구	.23(.32)***	.14(.16)*
회 귀 상 수	.71***	1.26***
R2	.573***	.376***

*** p<.001, *p<.05

다음으로 성별, 성충동, 성관계욕구가 시설노인의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7.6%를 설명하였으며, 남자인 경우, 성충동과 성관계욕구가 높을수록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시설노인 352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태도와 성욕구가 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시설노인들의 성태도는 부정적인 성태도가 긍정적인 성태도보다 높고, 이러한 성태도에 대한 성욕구나 성대처행동은 중앙값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노인들의 사적 개인공간이 부족하여 시설노인들이 성 대처행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가 대부분인 것이 원인[11]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시설노인들의 긍정적 성태도는 남자, 65세 이하에서 긍정적인 성태도의 점수가 높았다. 부정적인 성태도는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정적인 성태도는 86세 이상, 학력은 초·중졸집단, 고졸, 무학 순이었다. 이는 남자노인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17]와 유사하다. 그러나 김홍란(2004), 권명숙(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노년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다.

셋째, 시설노인들의 성욕구 역시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성충동은 남자, 65세 이하에서 성충동 점수가 높았다. 이는 김용미(2004)의 연구에서도 남자노인들이 연령이 낮을수록 성충동 점수가 높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성관계 욕구는 남자의 경우, 65세 이하인 경우, 무학, 고졸, 초중졸 순으로 높았다.

넷째, 시설노인들의 성 대처행동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은 남자, 65세 이하인 경우 높았고,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은 남자, 66~75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시설거주 남자노인들이 여자노인들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이나 문제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시설노인들의 긍정적인 성태도가 높을수록 성충동, 성관계욕구가 높고, 문제중심적 대처행동과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문제중심적이든 혹은 문제회피적이든 성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성태도가 높을수록 성관계 욕구가 낮았으며,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또한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시설거주 노인들의 성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만족이 높았고[11], 50세 이상 여성노인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만족이 높았다[25]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여섯째, 시설노인들의 성태도와 성욕구가 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학력, 긍정적 성태도, 부정적 성태도, 성충동, 성관계 욕구가 시설노인의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57.3%를 설명하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일수록, 성충동과 성관계 욕구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노인의 성별, 성충동, 성관계 욕구의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7.6%였고, 남자인 경우, 성충동과 성관계욕구가 높을수록 문제회피적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로운 성태도가 표현적인 성욕구 대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나임순(200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시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결국 시설노인들의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성태도 형성은 물론 시설노인들의 성욕구 대처행동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은옥(2007)의 연구에 의하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들은 잠자리를 같이 하길 원하는 두 남녀 노인들을 위해 충분한 크기의 침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같이 시설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시설노인의 성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노인의 성이 시설장의 성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17]을 고려할 때,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성태도와 성욕구, 성대처방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규명한 결과, 성태도의 유형과 성욕구에 따라 성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문제중심적이든 혹은 문제회피적이든 대처행동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시설노인들의 대부분이 무배우자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성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의 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설노인들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전환 프로그램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우선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이 시설노인들의 성을 주제로 하여 시설종사자와 시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시설종사자들이 노인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31.3%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노인 대부분이 독신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성태도를 갖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설노인들의 성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표집함에 있어서 무료시설과 유료시설 등 35개 시설에서 표집하는 등 광범위한 시설에서의 표집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연구대상이 일부지역에 편의 표집 되었으므

로 우리나라 시설노인 전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강태순,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02.

[2] 권명숙,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 김경자, 여성노인의 성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석사논문, 2002.

[4] 김용미, “남자노인의 성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 김용미, 김윤정. “남자노인들의 성욕구와 우울감간의 관계에서 대처의 중재적 역할”, 노인복지연구, 31, pp.119-138, 2006.

[6] 김은옥,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욕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7] 김주희, 이창은,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Vol.20, No.3, pp.185-195, 2000.

[8] 김현철, “노인의 성생활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9] 김홍란, “노년기 부부를 위한 성적 갈등 대처교육 프로그램”,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0] 김홍란, 김윤정 “노년기 부부의 성적적응 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9, No.2, pp.43-69, 2004.

[11] 나임순, “여성노인의 성지식 및 성태도가 성욕구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0, pp.215-236, 2005.

[12] 노길희, 허준수, “시설거주노인과 재가노인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pp.32-65. 2008.

[13] 박미자, 김윤정, “남자노인들의 성병감염증상 및 성욕구와 우울감간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pp.397-412, 2006.

[14] 박영숙, 전영민, “청소년 성 심리검사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Vol.20, No.4, pp.21-38, 2001.

[15] 방영숙, 남기민, “노인의 성태도와 성욕구 대처행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건강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6, pp.215-238, 2009.

[16] 송기오, “제주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17] 여순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 요구도 및 인식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여순자, 김윤정, ″노인복지시설의 성관련 환경이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1, No.2, pp.97-121, 2006.

[19] 오진주,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Vol.12, No.2, pp.236-251, 1998.

[20] 오진주, ″무료 노인시설 성 보호 환경과 종사자들의 관련 태도 및 활동 정도″ ,한국노년학, Vol.22, No.3, pp.99-113, 2002.

[21] 윤가현, “문화속의 성”, 학인사, 2001.

[22] 이지영,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23] 이호선, “노년기 성갈등 유형의 상호학문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4]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0

[2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26] Beverly and Johnson, A Correl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xuality in Women Age 50 and Old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pp.553-564, 1998.

[27]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

1984.

[28] W. Master and V. Johnson,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Little, Brown, 1966.

[29] E. Steinke and M. B. Bergen, Sexuality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12, No.6, pp.6-10, 1986.

저 자 소 개

최 유 호(Yoo-Ho Choi) 정회원

- 2004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2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박사수료)
- 2007년 ~ 2008년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보건, 사회복지, 노인, 가족

김 윤 정(Youn-Jeong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성공적 노화, 노인학대, 노인자살, 노인의 정신건강

김 용 미(Yong-Mi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석사)
- 2008년 2월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사회복지학박사)
- 2006년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청소년, 사회복지, 평생교육, 성, 가치관